

중소 고령자 기피 뚜렷...63% “채용계획 없다”

●중기중앙회 ‘2023년도 채용동향조사’ 결과

낮은 생산성·높은 인건비 등 부정적 인식 높아
응답기업 71%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있어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뒀음에도 여전히 중소기업계의 고령자 채용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경우 노동력 부족 해소와 숙련 인력 유입·유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는 고령자 채용의 허들로 자리잡았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4월17~28일 ‘잘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돼 있는 중소기업 1천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고령자 채용에 대해서 응답기업 63%는 고령자 채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있다’는 의견(37.0%)보다 1.7배 높은 수치로, 여전히 기업의 고령자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고 조사됐다.

고령자 활용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낮은 생산성’(32.5%), ‘높은 인건비’(25.7%), ‘조직 내 세대 갈등 발생 가

능’(24.0%) 등을 꼽았다.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상이한 응답을 보였는데, IT서비스업, 정보통신업종의 경우 높은 인건비가 부담된다(40.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의 경우 ‘낮은 생산성’(37.2%)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된다’(25.9%)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 활용에 긍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는 ‘숙련 인력 유입·유지’(69.6%)를 꼽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령자 채용이 ‘노동력 부족 해소’(43.2%)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기업의 71.0%가 올해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6.6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이 있는 직무로는 ‘생산직’(44.7%)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제조업에서 생산직 채용계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올해 채용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62.9%

였다.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는 응답(27.4%)이 축소한다는 응답(9.7%)을 크게 상회했다.

올해 인력운용현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과반수 이상(55.7%)의 중소기업이 인력 상황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인원 대비 재직인원 비율은 평균 90.9%로 전년 대비 8%p, 필요인원의 ‘100%’ 이상을 채용한 기업 역시 49.9%로 지난해(29.3%)보다 20.6%p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슈인 채용공고 상 급여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8.7%)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38.8%)이 많았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사전 동의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다(48.8%)는 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66.6%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명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수 중소기업 대부분이 신규 채용 의사가 확실한 만큼 채용 기업과 구직 청년 간의 활발한 일자리 매칭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내 ‘우수 일자리 채용정보’, ‘일자리 지도 탐색’ 등 카테고리 접근성을 보완하고, 기업정보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투데이경제



광주신세계, 태양광 랜턴 조립 봉사활동

㈜광주신세계는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에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나눔 활동 일환으로 태양광 랜턴 조립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 랜턴은 낮에는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충전해 최대 10시간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조명 기구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나눔 활동에서 임직원들은 170개에 달하는 랜턴 키트 조립과 희망의 편지를 직접 작성했다.

완성품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 에너지 빈곤국 아동들의 야간 학습과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전달될 예정이다.

활동에 참여한 광주신세계 사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세상에 희망의 빛을 전하는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한국섬진흥원과 도서지역 식수 1만병 기부,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및 결혼이동 정기후원, 임직원 헌혈 캠페인 참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TP-부산TP ‘지역기업 기술이전 촉진’ 맞손



우수기술·수요기업 발굴...사업화 협력 강화

광주테크노파크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자

자체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주·부산 지역 내

우수기술·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관계 구축과 상호 협력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광주·부산 지역 내 기술수요 및 기술이전 중개를 위한 정보 공유, 우수공급기술 발굴 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행사 개최 협력 ▲이전기술

에 대한 사업화 지원 협력 등 우수기술 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업무협약을 맺은 양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간 기술교류활성화와 사업화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경련 “하반기 반도체 부진, 자동차·이차전지 호조”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은 부진을 이어가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혼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방산 업종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 달진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6개 주

요 수출업종의 올해 하반기 전망을 공개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의 설비 교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으로 상반기보다는 여건이 양호하겠지만, PC, 스마트폰 등 반도체 수요 산업 부진으로 상승세

전환을 위한 동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 업종은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자동차 업종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

망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대규모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이차전지 시장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53.4%에 이를 정도로 선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광주문진원 ‘ICT 취업연계 인력양성’ 모집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호남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3일까지 ‘2023년 ICT 인노베이션스퀘어 취업연계 인력양성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ICT인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취업 희망자를 최대 2명 채용 후 직무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을 총 60시간 수행하면 인당 30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 지원 사업이다. 교육 대상에게는 ICT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신규인력 채용 예정인 호남지역에 소재한 AI·ICT 관련 기업이다. 총 20명(기업별 최대 2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과 교육비(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호남ICT인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https://www.honamict.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h2 style="text-align: center;">상무지구 상가 (매매)</h2> <p style="text-align: center;">▶ 중심 상업지구</p> <p style="text-align: center;">(6층,7층) = 140평</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세 → 14억</p> <p style="text-align: center;">급매 6억8천</p> <p style="text-align: center;">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2 style="text-align: center;">장성토지 매매</h2> <p style="text-align: center;">▶ 장성호(댐) - 5분</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 - 20분</p> <p style="text-align: center;">토목공사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6m 도로접</p> <p style="text-align: center;">(100평,150평,200평 가능)</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 style="text-align: center;">*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style="text-align: center;">▶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p> <p>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29억 → 최저가 20억</p> <p>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정가 50억 → 최저가 28억</p> <p>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p> <p>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22억</p> <p>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10억 → 최저가 7억5천</p> <p>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2천</p> <p>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p> <p>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19억</p>
<h1 style="font-size: 2em;">010-6670-9800</h1>		

